

기
조
연
설

도서관 경영패러다임과 기법의 변화

윤 희 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hy@daegu.ac.kr

목차

- I. 서 언
- II. 경영·행정패러다임의 변화
- III. 도서관 경영패러다임과 기법의 변화
 - 1. 도서관 경영환경의 복잡화
 - 2. 도서관 경영패러다임의 다양화
 - 3. 도서관 경영기법의 다기화
- V. 결 언

I. 서 언

일반적으로 조직체의 경영관리를 논급할 때는 대개 거시적 접근방법과 미시적 분석기법을 적용한다. 전자가 망원경을 통하여 조직체의 경영문제를 거시적으로 조감하고 추세와 흐름의 상관관계를 추론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현미경을 동원하여 특정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논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치중한다.

도서관 경영문제의 경우, '경영 = 현실'이라는 명제가 반증하듯이 미시적 기법을 적용한 이론 연구나 사례분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산된 도서관 업무의 아웃소싱,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사서직의 직무만족, 팀제조직의 도입, 자료예산의 배정모형, 공간구성과 동선계획 등의 밀착형 조사연구가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미시적 접근과 연구는 개별도서관 내지 특정 관종의 경영문제에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어떤 이유로 경영패러다임이 변하며, 그에 따라 등장한 전략과 기법이 도서관의 경영관리에 어떻게 접목·적용되고 있는지를 해명하기도 쉽지 않다. 시쳇말로 '나무를 논하되 산의 형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도서관 경영관리의 현상적 연구에 못지않게 그것의 동인과 변용, 국제적 동향을 조감할 할 때 사회와 도서관, 행정과 경영의 통섭이 가능하다.

이에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부상에 따른 신공공경영론과 선진국의 행정개혁에 주목하여 도서관 경영패러다임의 실체와 적용기법을 분석하고 최근 동향을 논급하고자 한다.

II. 경영·행정패러다임의 변화

1. 경영패러다임의 출현과 진화

과거 산업사회가 정보사회에 이어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면서 사고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영패러다임(management paradigm)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사회가 효율·경영을 지향한 반면에 지식기반사회는 가치창조의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체 중심의 경영패러다임과 원리는 <표 1>처럼 3단계의 진화과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지난 세기 초반에 시작된 산업화와 대량생산의 토양 위에서 출현한 '정태적 경영(statistic management)'을 말하며, '명령·통제에 의한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제2단계는 1980년을 전후로 디지털 혁명과 규제완화·민영화·자율화의 파고 속에서 등장한 '전략적 경영'의 시대로 '변화에의 적응을 통한 비교우위의 경쟁력 확보'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경영메시지

를 제시하였다. 이어 목하의 제3단계는 인터넷 혁명 · 세계화·네트워크화·사이버화의 격랑 속에서 상호작용과 공존(positive sum), 기업과 고객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태적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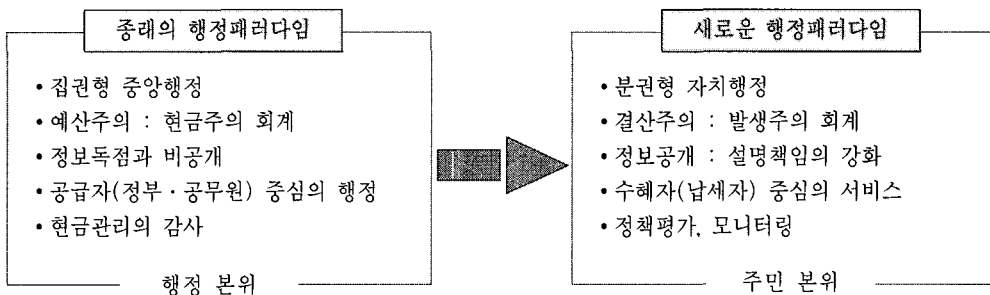
〈표 1〉 경영패러다임의 요체와 진화과정

구 분	대량생산 혁명 (1900~)	디지털화 혁명 (1980~)	인터넷 혁명 (2000~)
경영패러다임	정태적(전통적) 경영 (static management)	전략적 경영 (strategic management)	동태적 경영 (dynamic management)
핵심문제	명령-통제	변화에의 적응	시스템 내 행위주체간 상호작용
키워드	내적 효율성	비교우위 경쟁	지배적합성(dominant fit)
저변의 사고	감량주의(reductionism)	감량주의(reductionism)	전체론(holism)

이러한 경영패러다임이 도서관에 적용된 사례로는 중장기 발전계획, 종합계획, 비전연구, 전략적 계획에서의 SWOT 분석, 총체적 품질관리, 최근의 블루오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내 도서관계의 경우에 총정원제, 감량경영, 조직통합, 팀제도입 등의 다운사이징 기법도 기업체의 경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행정패러다임의 특징과 변화

도서관 경영기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부문은 행정패러다임(paradigm of public administration)이다. 정부와 행정기관이 견인하던 종래와 달리 디지털 시대는 민간과 행정이 상호작용을 전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특징은 〈그림 1〉에 도시한 분권형 자치행정, 발생주의 회계, 정보공개를 통한 설명책임의 강화, 수혜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정책평가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 집권형 중앙행정
- 예산주의 : 현금주의 회계
- 정보독점과 비공개
- 공급자(정부·공무원) 중심의 행정
- 현금관리의 감사

행정 본위

- 분권형 자치행정
- 결산주의 : 발생주의 회계
- 정보공개 : 설명책임의 강화
- 수혜자(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 정책평가, 모니터링

주민 본위

〈그림 1〉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이러한 행정패러다임이 등장한 배경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여러 선진국이 재정악화와 경제침체에 직면하자 대규모 행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많은 정부부문을 민영화하고 시장원리 및 계약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마침내 호주·캐나다·북유럽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계적 조류로 부상하였다.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은 전통적 행정관리와 다른 운영 방식을 요구한다.

종래의 정부가 법령상의 절차를 중시하였다면 행정개혁에서는 집행과 결과를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 경영원리를 도입한 이념이 소위 신공공경영(NPM : New Public Management)이다. 이 용어는 public administration의 ‘공공(public)’과 business management의 ‘경영(management)’을 결합한 것으로서 민간의 경영이념과 수법, 성공사례 등을 행정현장에 도입하여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업적 및 성과에 의한 통제, 시장에 의한 통제, 고객주의로의 전환, 계층제의 완화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입각하여 선진국은 행정개혁을 통하여 관료적 행정관리를 시장 메커니즘형 경영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서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일종의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NPM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국내 공공도서관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아웃소싱과 위탁운영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평가의 일환으로 도서관 종합평가 내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도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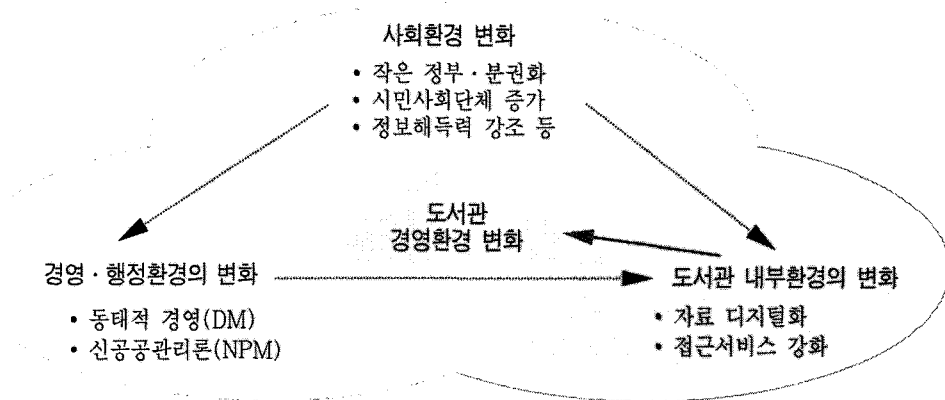
Ⅲ. 도서관 경영패러다임과 기법의 변화

1. 도서관 경영환경의 복잡화

도서관 경영환경은 경영관리의 핵심사이클인 계획-실행-평가의 반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환경요소를 말한다. 외부의 거시적 환경은 <그림 2>에 도시한 것처럼 다시 사회변화와 경영·행정의 변화로 양분할 수 있으며, 양자가 도서관 내부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환경의 변화를 재촉한다.

사회환경의 변화에는 노동인구의 감소, 고령사회로의 이행, 작은 정부론과 규제완화, 분권화와 지방화 시대, 자아적 판단과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 비정부 시민사회단체(NPO, NGO 등)의 증가, 디지털 통신기술의 급진전에 따른 정보해득력 제고,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내지 최소화 등의 필요성이 포함된다. 반면에 경영·행정환경의 가시적 변화로는 동태적 경영론의 부상,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한정된 경영자원의 분배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의 요구, 정책학의

발전, 행정개혁, 공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대와 다양화, 새로운 공민 협력체제의 구축, 행정 슬림화 및 민간시장의 활성화, 행정평가와 자기평가, 정보공개 및 설명책임의 확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2〉 도서관 경영환경 변화의 스펙트럼

이러한 외부환경은 도서관의 내부환경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변화의 촉매체로 작용한다. 그리고 내부 구성요소의 변화는 시대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경영환경과 패러다임을 창출하며, 따라서 도서관의 경영행태, 실무기능, 평가시스템 등에도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 국내 도서관계를 압박하거나 목도되는 경영환경의 복잡성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① 비용절감, 행정개혁, 민간 활성화에 기반한 아웃소싱과 위탁경영 추세
- ② 다운사이징 위주의 경영관리 및 인사파행에 따른 도서관의 위축
- ③ 정보기술의 수용에 따른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과 업그레이드 전략의 필요성
- ④ 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정책수립기능과 도서관 핵심역량 강화
- ⑤ 기본권 강화 및 소외(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무성 강조
- ⑥ 인터넷, 상업적 DDS, 오픈 액세스 등에 따른 사회적 위상의 상대적 약화
- ⑦ 서지 및 원문정보 등의 접근·검색·입수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지위의 상실
- ⑧ 양적 지표의 중요성 약화와 이용자 서비스 및 그 품질에 대한 평가비중의 증대
- ⑨ 자료구입비 무게중심의 이동에 따른 예산배정 및 지출모형의 최적화 모색
- ⑩ 주 5일 근무, 총액임금제, 연장개관과 야간서비스 확대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관리의 선행적 재검토와 조직구조의 상황적합성 확보
- ⑪ 실물소장과 원격접근을 위한 하이브리드형 도서관 구축논리의 개발

① 이용자의 도서관 우회현상에 따른 정체성 강화와 전략적 계획의 시급성

2. 도서관 경영패러다임의 다양화

최근에 디지털 시대를 상정하여 '접근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논리적 근거가 부실하고 도서관계의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도서관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이 명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서관 패러다임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한 다음에 신세기 경영패러다임을 추출하여 그 스펙트럼과 실체를 논급할 필요가 있다.

〈표 2〉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전통적 도서관 패러다임	새로운 도서관 패러다임
대상자료	• 아날로그형 자료(도서, 인쇄잡지, 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 등)	• 디지털 자료(E-book, 전자잡지, 웹DB, 인터넷 정보 등)
장서개발	• 소장중심의 수집패러다임(Just-In-Case)	• 제공중심의 접근패러다임(Just-In-Time)
자료정리	• 수작업(오리지널 목록)과 카드목록시스템	• 전산화(카피목록)와 DB 구축
보존관리	• 실물보존, 소극적 폐기관	• 디지털 아카이빙, 적극적 폐기론
이용봉사	• 카드목록 검색, 관외대출, 관내이용, 자료복사, 참고서비스	• OPAC 검색, 원격접근과 브라우징, 다운로드, 온라인 정보서비스, 메일서비스
정 체 성	• 실물공간(방문처)으로서의 도서관(paper library)	• 가상공간(접근노드)으로서의 정보공유지(information commons)

우선 폐가제 운영, 아날로그 장서개발, 대출봉사가 종래의 도서관 패러다임으로 회자되었다면 개가제 운영방식, 디지털 장서관리, 주제별 자료실 제도, 온라인 접근서비스 등은 신세기 도서관을 대변하는 일련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도서관 업무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집약하면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도서관 경영패러다임의 변화양상은 최근에 비교적 많이 논급되었으나 도서관 경영의 기초, 기법, 형태로 구분하여 그 대강을 간추리면 〈표 3〉과 같다. 요컨대 도서관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인터넷 정보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매우 복잡한 양태로 변함에 따라 도서관 패러다임도 디지털화, 접근성, 온라인 서비스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이 디지털 정보공유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도서관 경영패러다임도 이용중심의 관리, 전략적 사고, 시장시스템의 활용, 성과중심의 평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표 3〉 도서관 경영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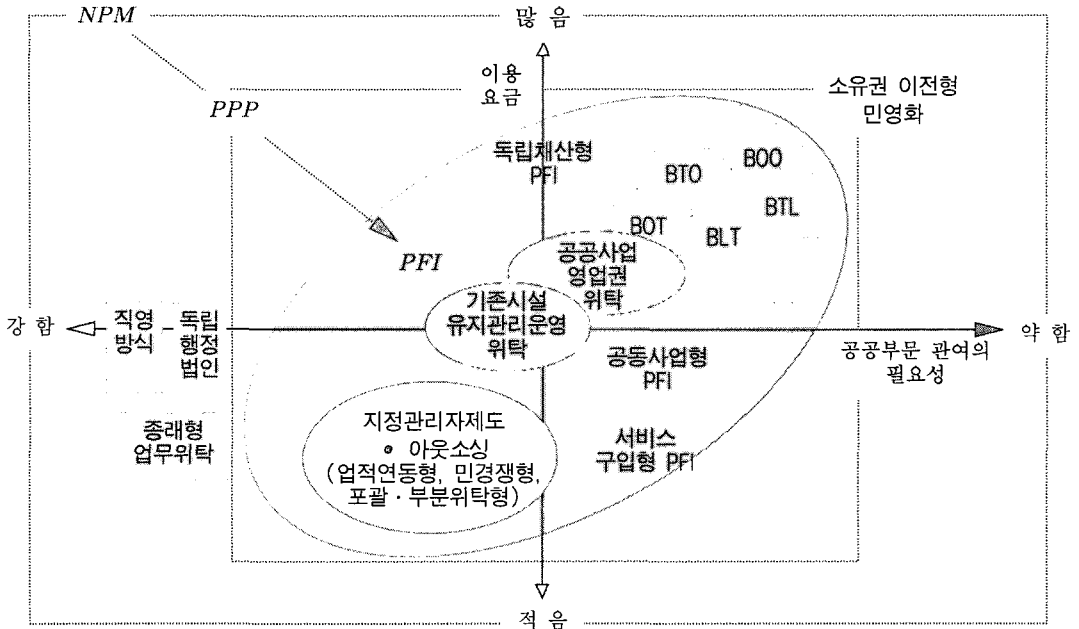
구 분	전통적 경영패러다임	새로운 경영패러다임	
경영기조	• 도서관(보존) 중심의 경영관리 (프톨레마이오스적 사고)	• 이용자(제공) 중심의 경영관리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경영기법	계 획	• 자관중심의 종합적 계획 • 전략적 경영의지의 결여	• 벤치마킹과 전략적 사고 •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혁신전략
	집 행	• 계급중심의 관료제와 확장주의 (hierarchy, Parkinson's law) • 법령·규칙에 의한 관리 • 경쟁적 수단의 제한적 활용	• 기능중심의 전문성과 다운사이징 (team-based, downsizing) • 업적·성과에 의한 관리 • 시장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평 가	• 하향식 직무평가 • 정량적 지표(소장책수, 직원수, 연면적, 대출 통계 등)의 투입-산출 평가	• 다면적 직무평가 • 정량·정성적 지표(소장중수, 접근·이용의 편의성, 서비스 만족도)의 투입-성과 평가
경영형태	• 직영 +부분적 아웃소싱	• 직영(아웃소싱)+위탁경영+지정관리자제도+ 민간자금 활용사업 등	

3. 도서관 경영기법의 다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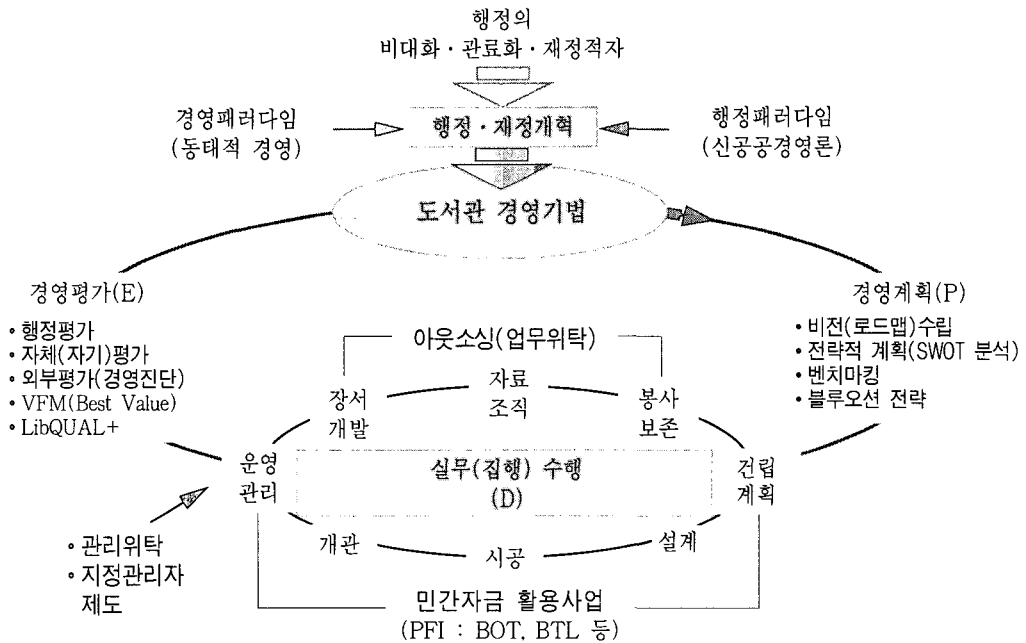
(1) 경영방식의 다원화

197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이 방만한 행정조직을 슬림화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적 책무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한 NPM은 〈그림 3〉처럼 경영방식의 다원화를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관계에도 새로운 경영방식이 적용됨으로서 〈그림 4〉처럼 다기화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사무집행 및 관리운영의 아웃소싱(Outsourcing), 위탁관리(Contracting out), 지정관리자제도(Designated Manager System), 민간자금 활용사업(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s)인데, 이들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다만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지식정보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비용중심의 지나친 경제사고와 행정논리를 적용하여 공공재적 성격을 크게 약화시키는 경영기법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경영이나 PFI 사업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의 정당한 지출과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다.



〈그림 3〉 신공공경영(NPM)의 파장과 상관성



〈그림 4〉 도서관 경영방식의 다원화

〈표 4〉 NPM(PPP, PFI)에 기반을 둔 도서관 경영방식의 비교

구분	개요	특징
아웃소싱	• 도서관의 일상업무 가운데 일부를 외주하는 방식	• 아웃소싱한 업무의 수행 및 유지관리는 도서관의 지시 하에 실시하며, 사무위탁으로도 칭함
위탁관리	• 도서관이 필요한 감독권 등을 보유한 다는 전제 하에 업무의 일부 또는 일부를 공단 및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	• 수탁자는 도서관으로부터 수탁료를 받는 대신에 도서관의 관리권한 하에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위탁관리하며, 이 경우에 지방자치체와 관리수탁자의 관계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및 수탁하는 공법상의 계약관계임
지정관리자제도	• 2003년 6월에 개정된 일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도서관 관리자를 지자체가 출자하는 제3섹터와 민간 사업자까지로 확대한 제도	• 관리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권리·권한·책임을 보유하는 대신에 그 사용자가 권한을 위탁하는 반면에 지정관리자제도는 시설의 관리권한도 위임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정행위는 일종의 행정처분임
PFI	•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설계·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수행하는 수법	• 사업비 절감과 저비용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사회자본의 정비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리스크 부담이 민간에 이전됨 • 민간의 사업기회 창출 및 사회기여 확대 • 제3섹터*와 달리, 애매하던 관민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엄격한 계약을 체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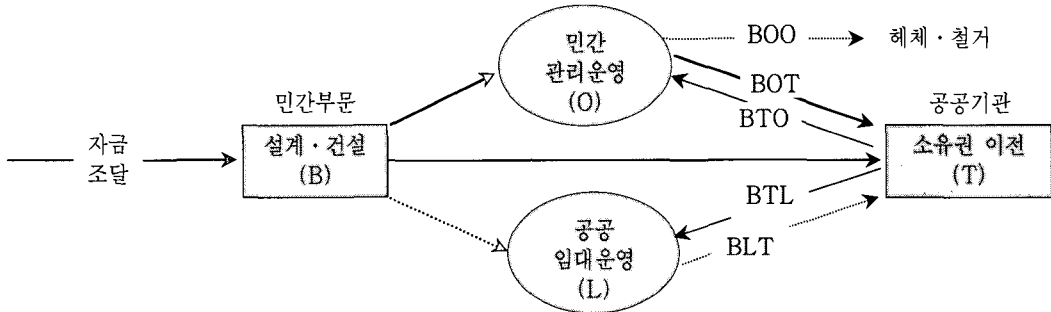
(2) 건설·운영의 민간사업자 의존도 심화

최근 도서관의 경영기법은 기존의 건물과 관리를 직영하는 차원에서의 선별적 아웃소싱이나 위탁관리에 그치지 않고 설계·건설에서 운영·관리를 민간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경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및 시공사가 완공한 다음에 직영하는 형태인데 비하여 NPM과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기반하여 일괄발주, 장기계약과 성능발주, VFM(Value for Money)에 의한 평가, 공민간의 적절한 책임 및 리스크 부담을 특징으로 하는 PFI 방식은 공공기관이 도서관 건립계획만 수립할 뿐 민간 사업자가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설계 및 시공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PFI 방식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관여정도에 따라 독립채산형(이용요금 등의 수입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형태), 공동사업형(공공기관과 PFI 사업자가 투자자금을 공동 부담하는 형태), 그리고 서비스 구입형(PFI 사업자가 건설·운영하고 공공기관이 그 서비스를 구입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경우는 이용료를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구입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PFI 방식은 도서관의 소유권 주체를 중심으로 〈그림 5〉와 같이 유형화하기도 한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최근에 BTL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05년 1월 27일자로 법령이 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며, 교육·문화·복지 시설 등에도 BTL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서관도 민간투자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문화관광부는 2005년에 2개관(인천시립도서관, 파주교하도서관)을, 2006년에 단위시설

로 4개관(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천안성정도서관, 전주시의 평화도서관과 아중도서관)과 복합문화시설내 4개관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향후 4년간(2007~2010) 총 46개관을 BTL 사업방식으로 건립·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5〉 도서관 PFI 사업방식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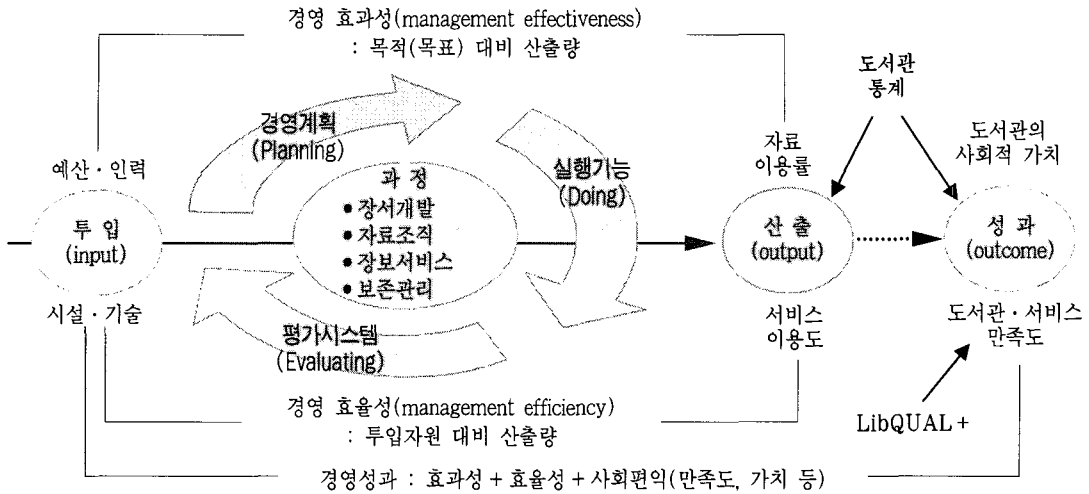
(3) 경영성과 및 고객지향성의 강화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운영되는 사회문화기관인 동시에 행정서비스 기관이다. 그래서 문화기반시설 평가 및 행정평가의 대상인 동시에 경영패러다임에 입각한 평가기능도 중시되고 있다.

다만 도서관 경영평가의 전모를 도시한 〈그림 6〉에서 종래에는 투입에서 산출에 이르는 미시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 대비 산출량을 측정하는 경영의 효과성, 투입자원 대비 산출량을 평가하는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2003년까지 문화관광부 주관한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평가' 중의 공공도서관 평가가 사례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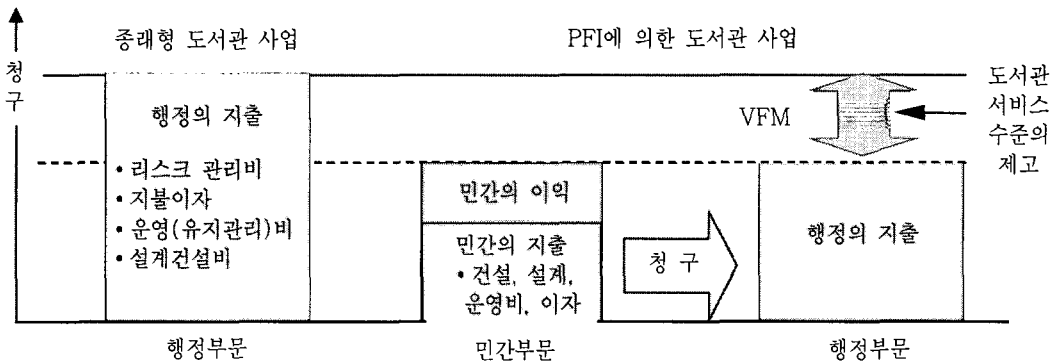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에 기업체의 경영성과 마인드와 기법이 행정기관에도 적극 도입됨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사각지대에 있던 도서관의 경영성과 및 고객만족에 대한 평가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를 대표하는 주요 사례는 같다.

첫째, 도서관 경영평가가 성과측정을 강조하고 지표구성도 국제적 통일성을 지향하고 있다. 1998년의 'ISO 11620(Library Performance Indicators)', 2001년의 'ISO2789(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 'ISO 11620'을 바탕으로 2002년에 제정된 일본의 'JIS X0812(圖書館パフォーマンス指標)'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현재 'ISO/DTR 20983(Performance Indicators for Electronic Library Services)'이 검토되고 있다.



〈그림 6〉 도서관 경영(성과)평가의 전모와 사이클

둘째, 도서관 경영성과의 대표적인 지표가 이용자 서비스의 품질, 즉 고객만족도이기 때문에 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도구가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 품질 평가 방법인 SERVQUAL을 도서관 서비스 평가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LibQUAL+ TM이다. 2003년부터는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위한 'e-QUAL'이 개시되었다.



〈그림 7〉 PFI에 있어서 VFM

셋째, 도서관 경영기법의 다기화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배태하고 있다. 가령 아웃소싱평가는 인소싱과의 비용 대 효과를, 관리위탁 평가는 직영과의 비용 대 편익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또한 NPM의 이념적 지주인 성과주의, 고객주의, 경쟁원리는 행정(정책)평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NPM에 기반한 PFI에서의 행정평가 기법으로는 VFM이 중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VFM

은 도서관을 공설공영 또는 PFI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법으로서, <그림 7>처럼 양자를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비교한 다음에 공설공영보다 PFI 사업방식이 더 효율적일 때 VFM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도서관의 경우는 이용자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최근의 도서관 성과평가는 업무성과 뿐만 아니라 외부효과, 즉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역시 NPM이 강조하는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 서비스 만족도의 제고, 효율적인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

IV. 결 언

지난 세기 후반부터 영국을 비롯한 새로운 경영 및 행정패러다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이를 대표적인 것이 기업체의 경영이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NPM이고, PPT와 PFI로 구체화되어 도서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NPM에 기저한 도서관 경영패러다임과 기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양태와 지향성은 경영방식의 다원화,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 경영성과 및 고객 지향성의 강화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중심의 지나친 경제논리와 행정주의는 도서관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운영주체의 난립에 따른 시스템적 연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위탁경영이나 PFI 사업을 적용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고 소외(취약)계층의 정보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徳原 直子, “図書館パフォーマンス指標と図書館統計の国際標準化の動向.” 現代の図書館, Vol.40, No.3(2002), pp.129-143.

NTTデータ経営研究所. 公立図書館PFI事業化の可能性に関する調査研究. 東京 : 同研究所, 2004.

野田 勝康. “NPM理論とPFIモデルによる社會資本整備.” 政策科學(立命館大學 政策科學會), Vol.9, No.1(Nov. 2001), pp.95-110.

윤희윤. “공공도서관 위탁구상의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도서관, 제53권, 제3호(1998 가을),

pp.3-46.

윤희윤. “도서관의 아웃소싱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2000, 9), pp.1-21.

윤희윤. “지방분권과 공공도서관의 향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4, 12), pp.25-48.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民間の経営理念や手法を導入した予算・財政のマネジメントの改革. 東京 : 同研究所, 2001.

佐藤 義則. “LibQUAL+TMの展開と図書館サービスの品質評価.”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 No.280 (2006. 6. 10)

〈<http://www.dap.ndl.go.jp/ca/modules/ca/print.php?itemid=957>〉

Cook, C. et al. “Users’ Perceptions of Library Service Quality : A LibQUAL+ Qualitative Study.” *Library Trends*, Vol.49, No.4(2001), pp.548-584.

Naschold, Frieder. *New Frontiers in Public Sector Management : Trends and Issues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Europe*. Berlin : Walter de Gruyter, 1996.

Ward, Robert C. “The Outsourcing of Public Library Management.” *Administration & Society*, Vol.38, No.6(Jan. 2007), pp.627-648.

Section A

도서관 경영전략

-
- ▷ 기획주제 : 21세기 도서관경영의 현상과 과제
 - ▷ 일시 : 2007년 6월 1일 (금)
 -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모의법정실
 - ▷ 사회 : 송 영 희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14:30~15:00 발표자 : 정 재 영 (서강대학교 도서관 사서)
주 제 : 대학도서관 팀제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
토론자 : 김 자 후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5:00~15:30 발표자 : 최 상 기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주 제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서관 경영전략
토론자 : 오 동 근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5:30~16:00 Coffee Break

16:00~16:30 발표자 : 광 동 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주 제 :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상과 과제
토론자 : 이 만 수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6:30~17:00 발표자 : 박 년 수 ((주)이지막 대표이사)
주 제 : 정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동 목록 시스템
활용 방안
토론자 : 김 정 현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